

<2012년 12월 17일 월요일 새벽 잠언> 중요

* 쪼개는 역사다.

1. 때가 되면 ‘의’도 드러나고 ‘불의’도 드러난다.
2. 혼계에서는 혼이 보고, 육계에서는 육이 행한다.
3. 첫 번째 차원은 체질 개선하기, 두 번째 차원은 행하기, 세 번째 차원은 얻기, 네 번째 차원은 얻은 것을 잘 쓰기다.
4. 성자 주님 앞에 신부로서 사랑의 사명을 못 하면 사랑의 위치가 바뀐다.
5. ‘사랑의 측정’은 두 가지로 한다. 첫째, 육신이 얼마나 그만한 삶을 사느냐를 보고 측정한다. 둘째, 마음과 생각으로, 혼적으로 영적으로 사랑하느냐를 보고 측정한다.
6.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의 행위를 보고 슬퍼하고 후회했다. 이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이 후자로 준비되어 있었다. 너희도 생명에게 사랑과 시간과 돈과 정성을 투자했으나, 끝까지 자기 책임을 못 한 자들을 보고 사무엘처럼 슬퍼하고 후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다윗 같은 자가 준비되어 있다.
7. 와스디를 보고 실망하며 분노할 것 없다. 에스더를 찾을 때다. 에스더를 찾으면 오히려 “잘됐다.” 하며 잔치하게 된다.
8. 와스디는 성격상 평소에 왕의 말을 잘 안 듣고 자기중심으로 살면서 자기 낮내는 짓을 잘하는 여자였다. 반면 에스더는 평소에 사람들을 대할 때도 늘 하나님을 대하듯, 뜻있는 자를 대하듯 모심과 섬김을 잘하는 여자였다. / 비교해 보니 와스디는 땅에서 낳은 자요,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에서 낳

은 자였다. 고로 중심도, 인물도, 인격도, 모든 것이 와스디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뛰어났다. / 전자보다 후자가 강하고 이상적이다. / ‘역사’도 신약은 구약과 비교가 안 되고, 성약은 신약과 비교가 안 된다.

9. ‘전자’는 사울과 같고 ‘후자’는 다윗과 같다. ‘전자’는 와스디와 같고 ‘후자’는 에스더와 같다. / 이 시대 신부 역사에서도 ‘사랑과 순종’의 사명을 못 하면, 사울과 와스디 같은 운명의 사람이 된다. 신부 역사에서는 사랑과 순종이다. 사랑과 순종은 붙어 있다.

10. 이 시대는 목숨 걸고 가는 시대다.

11. 월명동 야심작을 쌓을 때 네 번이나 무너졌다. 그러나 그때마다 더 좋은 돌로 바꾸면서 쌓았다. 결국 더 멋지게 쌓았다.

12. 월명동 집도 첫 번째는 다 쓰러져 가는 초가집이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초가집보다 더 좋은 함석집으로 바뀌었고, 세 번째는 청기와집으로 더 좋게 바뀌었다. 네 번째는 더 좋게 바뀐다.

13. ‘자기 신앙’도 더 좋게 바꾸려고 목적을 두고 행할 때, 희망에 불타게 된다.

14. 인생은 새롭게 더 좋게 바꾸기다.

15. 썩으면 바꾼다.

16. 옛것은 바꾼다.

17. ‘사랑’ 보고 바꾼다.

18. 논두렁의 뜰부기야. 그렇게도 네게 기대하며 정성을 들였는데 끝까지 못

했으니, 백조로 바꾼다. 백조가 논두렁을 다니니 빛이 난다. 사람들이 가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 빠지게 쳐다보며 구경한다.

19. 들 노루야. 너는 세상을 뛰어다녀라. 그렇게도 네게 기대하며 정성을 들였는데 끝까지 못 했으니, 꽃사슴으로 바꾼다. 주인이 없으니 사냥꾼이 너를 사냥하러 쫓아온다.

20. 구시대는 가고 더 좋은 시대가 왔다. 고로 더 좋은 사람이 돼야 한다. 시대가 뒤바뀌었는데도 바뀌지 않는 사람은 문전걸식하게 된다. 시대도 그러하고, 사람도 그러하다.

21. 길이 개통되지 않아서 교통이 안 되는 자들과 교회와 지역은 개통하여라. 뒤바뀌라. 그래야 새 역사를 펴 나간다. 옛길은 잡초 지역이 되고 만다.

22. 자기 혼자 꿈꾸는 것은 혼자서 희망이다. 기다리던 자가 와서 잔치하고 있건만, 정신 나가고 넋이 나가서 세상에서만 살아간다.

23. 그렇게도 자기 할 일만 하면서 말을 안 듣더니, 결국 거죽으로 쪼개지는구나.

24.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라.

25. 은반지에서 금반지로 바꾸어라. 금반지에서 다이아몬드 반지로 바꾸어라. 지금은 그런 시대다.

26. 주님은 부정부패하며 썩을 짓을 하는 자들의 마음과 행위를 보시고 새롭게 뒤바꾸신다.

27. 떨어진 신발과 해진 옷을 더 좋은 것으로 바꾸듯이, 마음과 생각과 행위의 차원을 모두 바꾸어라.

28.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사랑이 빛나는 자는 나이가 먹어도 계속 더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고 뒤바뀌며 빛이 난다.